

시대정신으로 접근한 마살아츠 흐름에 대한 소고*

강은석(동아대학교 교수) · 박선호(동아대학교 박사수료) ·

이지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무술, 무도, 무예라 불리는 시대와 스포츠와 상업화로 불리는 시대, 그리고 행위와 공연예술로 불리는 시대로 변화하는 마살아츠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정리 필요로 시작되었으며 마살아츠에 의한 사회적 현상과 시대에 따른 문화적 소산을 심층적 기술로 적용하여 시대정신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무술, 무도, 무예로의 흐름에서는 각 명칭에 대한 쟁점이 정체성과 방향성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 이견을 보였고 동북아 중심으로 국한되어 연구된 무술, 무도, 무예는 현대 사회로 진입하며 국가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시대정신의 다원성을 근거로 마살아츠는 민족의 특수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내셔널리즘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포츠와 상업화로의 흐름에서는 스포츠 규칙과 경쟁이라는 제도에 무술, 무도, 무예 종목이 결합하여 마살아츠 스포츠라는 형태로 진화되었으며 상업화된 마살아츠 스포츠는 무술, 무도, 무예의 본질적 사상이 배제되는 문제점과 스포츠 문화의 탈 장르적 특성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행위와 공연 예술로의 흐름에서는 무술, 무도, 무예의 본질적 시각과 마살아츠 스포츠 규칙 및 경쟁 차원을 벗어난 새로운 마살아츠가 도래하고 있었고 시대정신에 따른 그 시대 문화와 인간 행위 및 탈 절대이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보화 시대의 공급이 넘치는 사회로 이어지며 또 다른 소비문화 현상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주제어 : 시대정신, 마살아츠, 무술, 무도, 무예

* 이 논문은 2020년도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vastlee4@dgist.ac.kr

I. 서 론

시대정신이란, 한 시대를 풍미했거나 지배했던 지적, 정치적, 사회적 현상과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을 말하며 이는 그 시대에 사는 인간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이 환경에 따라 변모하기에 시대정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호기, 2012; 서규환, 2011). 또한, 그 시대를 장악한 인간들의 생각이나 철학사상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문화적 소산에 공통된 인간의 정신적 태도와 양식이라 설명하기도 한다(김수평, 2019; 이은진, 2020; 홍득표, 2011).

이에 본 연구자와 공동연구자는 현장에서 무도 또는 무예라 일컫는 전공 계열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마살아츠라는 특정적 관점에서(김영선, 여인성, 2018; Chu, 2003; Johnson, 2017), 무술, 무도, 무예라 불리는 시대와 스포츠와 상업화라 불리는 시대, 그리고 행위와 공연예술로 불리는 시대로 변화되는 문화적 사실을 인지하고 마살아츠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정리의 필요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더불어 마살아츠에 열광하는 인간들의 사회적 현상과 마살아츠의 각 시대에 따른 문화적 소산을 시대정신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고자 하였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마살아츠의 사회적 의미와 이해를 통해 앞으로 발전될 마살아츠 미래를 사회학적 방향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으로 시대정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통찰력에 따른 특정적 문화의 확대 과정’을 살펴보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능력과 어떤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중요 여부를 판단해내는 시각, 그리고 노력 또는 직관에 의해 배양되는 순서를 거친다(최성환, 2015; 허창수, 2019).

그리고 특정적 문화를 누리기 위해 특정적 문화를 추구하는 인간들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실적 양상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서규환, 2011).

첫째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특정적 문화 확대의 시작을 알리며, 둘째로는 특정적 문화 유지와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셋째로는 문화확대와 학문적 토대를 기반으로 상호작용 과정을 반복하며 특정적 문화 추구와 유행을 주도한다.

이와 같은 정의를 마샬아츠라는 특정적 문화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마샬아츠 문화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노력으로 과거 무술, 무도, 무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들의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또 다른 단어로 마샬아츠 문화가 유지되고 확대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샬아츠 관련 다양한 연구결과물들은 학문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성진, 고연화, 2009).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마샬아츠는 폭넓은 의미로 부각되며 스포츠와 예술영역에 거대한 세계문화로 성장하고 있어(정재환, 김지혁, 곽택용, 2012), 현대사회 문화적 소산의 하나로써 시대정신이라 볼 수 있으며 현 시대의 인간은 마샬아츠 문화의 시대정신을 이용함으로써 삶의 유희와 희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자 Peter Thiel(2014)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는 시대의 정서가 변화하기에 ‘명확하게 낙관적인 미래, 불명확하지만 낙관적인 미래, 명확하게 비관적인 미래, 그리고 불명확하며 비관적인 미래’ 이상의 네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마샬아츠 시대정신은 ‘명확하게 낙관적인 미래’로 예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마샬아츠 변화의 속도는 다르지만 기성세대가 받아드린 무술, 무도, 무예 측면의 마샬아츠 의미와 발전은 미래지향적인 현상을 보였고(김지혁, 구강본, 2017; 김지혁, 안용규, 2016; 이정학, 2008; 차명환, 2015), 현세대가 받아드린 개념이 확장된 마샬아츠 행위와 이해 역시, 마샬아츠를 포괄하는 의미, 용어, 명칭만 시대에 따라 달라졌을 뿐, 경제, 산업, 사회, 문화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성진, 고연화, 2009; 이정연, 김방출, 오현택, 2006).

그러나 시대정신에 있어 본질적 존재이유가 현상유지를 위한 명분으로 전락하거나 본질적 진실에 따른 명확한 결론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서 블랙스완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마샬아츠의 본질적 진실인 무술, 무도, 무예의 개념이 무너지고 상업적 측면에 기울어 발전하게 된다면 무늬는 마샬아츠인데 속살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할 수 있

으며 마살아츠의 본질을 무시한 채, 상업화만 가속하게 된다면 본질적 진실을 가리고 예측하지 못한 큰 파급력의 블랙스완이 도래할 수 있다.

표 1. 본 연구에서 설정된 기준

시대정신	마살아츠
과거	무술, 무도, 무예
현재	스포츠와 상업화
미래	행위와 공연예술

따라서 본 연구는 <표 1>과 같이 시대정신으로 접근하여 마살아츠의 흐름에 대해 과거는 무술, 무도, 무예로 현재는 스포츠와 상업화 그리고 미래는 행위와 공연예술로 나누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시대에 따른 마살아츠의 의미와 이해를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마살아츠의 본질적 진실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서(advertence)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II. 무술, 무도, 무예로의 흐름

본 장에서는 무술, 무도, 무예가 스포츠화되기 이전의 흐름을 중심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무술, 무도, 무예 명칭에 대한 쟁점이 아직까지 명확히 정립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김영선, 여인성, 2018; 이경명, 2002). 그 이유는 고대사회부터 명칭에 대한 중국, 일본, 한국의 민감한 역사적 사실에 해석이 각기 다름에서 오는 이질감이 이해관계로 결부된 중요사안이기 때문이며 명칭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학자들의 주관에 따라 다소 이견을 보이는 문제도 쟁점의 사안으로 보였다.

무술, 무도, 무예 명칭에 대해 이학준(2017)은 한자의 뜻에 기초한 자의적 관점, 국가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지리적 관점, 명칭의 개념이 단계적으로 변

화했다는 진화론적 관점, 동북아 역사적 사실에 의거한 역사적 관점,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맥락적 관점에 따라 명칭의 정의는 달라지지만, 무(武)의 행위를 한다는 점과 열린개념의 시각에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다의적 사용을 포용해 왔다는 기준을 통해 무의 목적과 맥락의 차이에 따라 명칭의 혼용은 차이를 보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귀순(2018)은 무술이 무예와 무도의 기술 혹은 기능적인 개념을 취하고 있고 무술의 행위 관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보이지 않는 힘의 개념이 무예와 무도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여 무예와 무도는 무술에서 기인했으며 일본으로 넘어간 무술은 무도, 한국으로 넘어간 무술은 무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무술, 무도, 무예에 대한 흐름과 명칭에 대한 시대적 사안 등이 고려된 선행연구들의 공통된 주장은 싸움기술의 실천적 측면에 해당하는 무술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박철희, 1957; 심상규, 1998; 양진방, 1999), 이러한 무술이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의 문화적 사상에 맞는 행위예술과 예법에 해당하는 무예로 계승하였고(나영일, 2001; 이경명, 김철오, 2004; 임동규, 1990), 일본의 무사도 정신에 따라 삶의 철학에 해당하는 무도로 발전하였다는 논리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김정행, 김창우, 이재학, 2007; 최종균, 2002; 최종균, 박귀순, 2017). 이러한 무술, 무도, 무예는 과거 문헌들을 통해 다양한 종목으로 나타나고 규칙을 적용한 경기화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은 권법류가 우슈로, 일본은 유술이 유도로, 한국은 택견이 태권도로 변모하며 현대사회 스포츠로써 재탄생되었다는 사실이다.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진입하며 무술, 무도, 무예 측면의 종목들은 경기화를 통해 상업화 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과거 동북아 중심으로 국한되었던 무술, 무도, 무예의 시각은 세계화로 확대되며 <그림 1>과 같이 수많은 종목이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무술, 무도, 무예 종목들이 과거로부터 현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스미디어 및 소셜네트워크(SNS)의 영향과 마살아츠 상업화가 결합하며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그림 1>의 종목들은 현대사회에 이르러 탄생하였다고보다 이전부

터 존재하였지만, 필리핀의 칼리아르니스나 이스라엘의 크라브마가 그리고 러시아의 시스테마와 같이 체계화가 된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세계 무술, 무도, 무예의 종류(헤커스뉴스, 2019)

더불어 동북아의 전통적인 무술, 무도, 무예는 직관적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정신과 철학이 정립된 형태라 볼 수 있는데(차명환, 2015), 세계적 시각의 무술, 무도, 무예들은 그에 따른 철학적 사상이 언급된 문헌을 아직 확인된 경우가 없으므로 어떤 종목이 무술인지, 무도인지, 무예인지 명칭에 대한 명확

성을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무술(martial technique), 무도(martial way), 무예(martial artistry)를 통틀어 마샬아츠(martial arts)라 하는 영어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김영선, 여인성, 2018; Chu, 2003; Forrest, 2007; Johnson, 2017), 적합하다 판단되며 모든 마샬아츠를 맹목적 싸움의 실천적 기술로 불리는 무술 명칭으로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샬아츠로써 무술, 무도, 무예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아닌 감성과 이성 그리고 운명공동체라는 전체주의의 비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김동규, 2010), 각 국가에서 탄생된 마샬아츠의 무술, 무도, 무예는 암묵적으로 민족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실용적 의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셔널리즘을 내세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동양사상이 뿌리 깊은 무술, 무도, 무예의 공통적 철학은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드러난 국가별 마샬아츠 종목들과 동반성장을 가져왔지만, 기술적이고, 정신적이고, 예술적 색깔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의 보편적 특징으로 인해 퇴색될 우려의 소지는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문화의 균일화 양상은 국가 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지역화의 양상과 공존하기에 국가별 마샬아츠에 내재한 내셔널리즘이 갖는 의미는 절대 비합리적이라는 평계로 묵인될 수 없으며 시대정신의 다원성을 근거로 마샬아츠 문화와 본질적 가치는 미래지향적이고 진보된 형태의 내셔널리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술, 무도, 무예가 추구하는 마샬아츠의 또 다른 본질적 정체성이 다소 훼손되어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III. 스포츠와 상업화로의 흐름

본 장에서는 마샬아츠로써 무술, 무도, 무예의 종목들이 스포츠화된 흐름과

그에 따라 상업화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대해 스포츠의 학문적 정의, 마샬아츠와 스포츠, 그리고 마샬아츠의 상업화를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우선 선행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부분은 스포츠의 학문적 접근으로 스포츠 용어가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개념정의를 아직까지 체육학자들에게 도전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안용길, 2016). 왜냐하면, 20세기 후반 다수의 체육학자들에 의해 스포츠의 특징으로 간주되었던 신체활동성, 유희성, 경쟁성 등이 보편적 스포츠 정의라 불리기엔 그 자명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송형석, 2011).

그리고 어원의 유래에 따라 즐거움, 놀이, 게임, 탐험, 사냥, 도박, 행위 등 정의를 하기에 너무 광범위한 체재를 하고 있어 어디까지 스포츠로 기준을 정해야 할지 그 모호성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지만(김오중, 2000), 확실한 사실은 인간의 초기 문화형태로써 놀이가 스포츠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전제되고 놀이본질에 관한 이해없이 스포츠는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놀이에서 기인했다고 보이며 놀이가 자발적, 무규칙의 활동인 반면, 스포츠는 규칙과 경쟁이라는 제도를 삽입함으로써 신체적인 경쟁을 통해 승패를 결정하는 운동경기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시대에 걸쳐 다수의 체육학자에 의해 스포츠는 공통으로 경쟁성과 유희성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고 합의를 통해 제도화된 규칙에 지배를 받는 인간의 신체활동이라 표현할 수 있다(김방출, 2013; 안용길, 2016). 이러한 학문적 정의를 지니고 있는 스포츠가 현대사회에 진입하며 마샬아츠로써 무술, 무도, 무예의 종목과 결합되고 함께 공존하는 마샬아츠 스포츠라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김지혁, 구강본, 2017).

이와 같은 현상은 무술, 무도, 무예의 특성을 드러내어 규칙이 있는 제도인 경기화에 적용함으로써 마샬아츠 측면의 발전과 스포츠 요소인 경쟁성, 유희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석기와 김지혁(2014)은 스포츠를 통해 인간이 표출하는 환호, 열정, 결실 등이 신체움직임에 의한 아름다움과 쾌를 선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칙, 오심, 폭행, 추함과 불쾌를 동반하고 있어 스

포츠 세계가 심미적 특성을 보인 미와 추를 다루지만 윤리적 특성인 쾌와 불쾌가 동시에 공존하는 특이한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스포츠로 경기화된 마샬아츠의 무술, 무도, 무예의 종목이 자칫 본질적 마샬아츠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확대되는 현상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샬아츠의 무술, 무도, 무예는 스포츠와 유사하게 공시적 개념 속에서 인간의 행위와 동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외형적 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철학적 사고를 내재하고 있다(김지혁, 구강본, 2017). 즉, 마샬아츠의 무술, 무도, 무예는 시대정신의 전통적 문화가 담겨있는 반면 스포츠는 서양의 실용주의 사고방식의 문화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자의적, 지리적, 진화론적, 역사적, 그리고 맥락적 관점에 따라 반영된 채 현대사회에서 미래사회로 연결되어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반하며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샬아츠의 무술, 무도, 무예는 수련과 정신수양이라는 내면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여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의 세계로 이해하기에 실천행위의 인격형성과 도덕적 관념을 우선시 하는 반면 스포츠는 인격형성보다 기술능력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김지혁, 구강본, 2017), 무술, 무도, 무예의 스포츠 종목 선수들은 스포츠의 우선순위와 마샬아츠의 우선순위 사이에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사실적 예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태권도 선수인 쿠바의 앙헬 발로디아 마토스가 심판에게 항의하다 본인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심에게 얼굴돌려차기를 한 사례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즈베키스탄 유도선수 쇼키르 무니노프의 금지약물 복용 사례, 그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사례 등은 이른바 무술, 무도, 무예라는 종목 선수들의 어두운 민낯으로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밖에도 국제적 대회에서 소위 마샬아츠라 불릴 만한 레슬링, 펜싱, 가라테, 복싱, 검도 등에서도 편파판정 시비와 폭력이 얼룩지는 사례가 나타나 마샬아츠 본질적 개념이 퇴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유홍식, 임성원, 김수정, 박원준, 김인경, 2004). 그렇다면 마샬아츠로써 무술, 무도, 무예에서

시작된 스포츠 종목들이 오늘날 마샬아츠의 본질을 무시한 채 승리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그 시대를 대변하는 사회적 현상과 동향이 시대정신이라 한다면 이를 가속화 하거나 유지하는 상태는 문화적 소산이라 할 수 있다(김호기, 2012). 그리고 문화적 소산이 그 시대에 유입됨에 있어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에는 여론의 영향과 합의를 통한 절차 등 규정된 형식과 절차를 동반하지 않으나 직, 간접적인 전파로 인해 사회에 파급됨과 동시에 나름의 논의와 사회적 비판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와 비판은 새로운 문화를 사회로부터 수용하고 정착화되는 과정을 겪으며 기존 문화의 가치나 형식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럽게 전환하는 경우 이슈화와 논란 과정은 필연적 양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마샬아츠의 무술, 무도, 무예의 스포츠화는 시대정신에 있어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지며 사회로 파급되고 그 시대를 사는 인간들 나름의 논의와 사회적 비판을 동반하며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마샬아츠의 무술, 무도, 무예는 스포츠화 발전의 과정에서 기존의 또 다른 문화인 상업화와 연계되어 스포츠의 상업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사회적 비판도 이어진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모든 문화사상과 삶의 양식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며 일정한 원칙의 틀에서 해방되고 기존의 규칙과 관행들로부터 다양한 해석을 창조해 낼 수밖에 없기에 마샬아츠의 스포츠 가속화는 이제 스포츠의 정의를 넘어 그 경계가 모호한 시대를 맞이하며 상업화를 등에 업고 원칙을 벗어난 틀 밖에서 다양한 해석으로 불리며 재해석 되고 있다. 대표적 사실로 <그림 2>와 같이 스포츠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그 시대 인간들이 열광하는 이종격투기(Mix martial arts) 시장이나 마샬아츠로 포장한 영화산업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스포츠 문화의 탈 장르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종격투기 선수들의 가시적 퍼포먼스와 경기장 및 선수복장을 도배한 광고문구들은 스포츠라기보다 후원자를 자처한 기업들의 전시회를 보는듯하며 마샬아츠 영화들은 현실이 반영된 스토리텔링이 아닌 화려한 폭력기술의 향연으로 그 시대 인간

들에 의해 대중화되고 있다. 이에 유홍식, 임성원, 김수정, 박원준, 그리고 김인경(2004)은 현대인이 이종 격투기 시청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폭력성과 공격성향에 대리만족을 하며 광고를 기반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선수 간의 과도한 경쟁유발을 통해 마샬아츠를 대중화와 상업화에 연쇄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2. 이종격투기 시장과 마샬아츠 영화의 예(조재휘, 2020)

현재 마샬아츠 측면의 스포츠 대회들은 일반 스포츠 대회들과 다르지 않게 기업들의 후원 없이는 대회개최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으며 과거 무술, 무도, 무예적인 본질과 스포츠의 규칙은 무규칙과 유희성의 확대로 변질되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지만 이런 문화적 사실을 무조건 마샬아츠의 역기능으로 판단하기보다 시대정신의 흐름에 따라 도덕적, 윤리적 기준의 냉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적절하다 사료된다.

IV. 행위와 공연예술로의 흐름

본 장에서는 과거 마샬아츠라 불린 무술, 무도, 무예의 본질적 시각과 현대 마샬아츠 스포츠 종목의 경쟁과 유희적 차원에서 벗어난 새로운 마샬아츠에 대해 시대정신으로 논하였으며 이는 크게 마샬아츠 트릭킹(Martial arts tricking) 또는 XMA라 칭하는 행위로써 마샬아츠와 공연예술로써 마샬아츠에

대해 심층적 기술을 하였다.

XMA란, 마이클 차투런타부트(Michael Chaturantabut)이라는 태국계 미국인이 연기와 무술을 병행하며 창작한 퍼포먼스를 미국 무술용품 회사인 센추리사와 협약하여 탄생되고 그 브랜드가 국내로 유입되며 브랜드 고유명사가 마샬아츠를 대신하는 단어로 불리게 된 신조어이다(한혜진, 2013). 또한, XMA는 Xtreme martial arts라는 극한의 무술, 무도, 또는 무예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 MMA(Mix martial arts)라 칭하던 이종 격투기 영문과 유사하게 명사화된 단어이며 Extreme sports 유행에 따라 Martial arts에 Extreme을 갖다 붙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마샬아츠 트릭킹은 1980년대 미국 스텐트맨 팀들이 곡예중심의 무술 시범을 선보이며 시작되었고 2000년대 초, 미국의 게임회사 홈페이지(Biling.com, Trickstutorials.com) 등을 통해 트릭킹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며 유튜브가 등장하고 동영상을 통해 세계 여러국가의 트릭커들이 본인의 기술을 공유함에 따라 트릭킹의 어원과 기술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김보민, 2017; 이광호, 2018). 그리고 2010년도를 넘어서며 트릭킹의 동작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으며 이 시대를 중심으로 마샬아츠 트릭츠(Tricks)라 불리던 명칭이 트릭킹(Trick+ing)이라는 단어로 정착되어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트릭킹을 접하게 됐고 트릭킹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마샬아츠트릭킹이나 XMA는 마샬아츠적 성격을 표방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태권도, 가라데, 우슈, 카포에라 삼보등 기존 무술, 무도, 무예의 정체성에 기계체조의 공중회전, 수평회전, 비보잉, 아크로바틱, 파쿠르 그리고 트릭킹 요소와 기술들이 결합되고 융융한 동작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는 화려한 동작 연출과 신체 행위의 난이도가 높은 기술표현을 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김민훈, 2019). 더불어 행위를 하는 사람에 따라 익스트림 마샬아츠, 마샬아츠 트릭킹 등으로 혼용되어 불리고 있으며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마샬아츠라 할 수 있다.



그림 3. 마샬아츠트릭킹(익스트림마샬아츠) 행위들(구창민, 2017)

이러한 현상은 마샬아츠를 스포츠화시킨 서양의 물질주의와 이성주의에 바탕을 둔 분석적 과학주의가 문화의 진보로써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지동철, 2011), 동양 무술, 무도, 무예의 자연주의와 실천주의가 그 이면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시대정신에 따른 그 시대 문화와 인간 행위 및 양식이 탈 절대이념의 개성, 자율성, 다양성, 그리고 대중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보화 시대의 공급이 넘치는 사회로 이어지며 또 다른 소비문화 현상의 결과로 볼 수 있다(박이문, 2004).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현대에서 미래로 진행 중인 현 사회에서 문화와 예술의 퍼지 집합 특성은 대중매체와 기업들의 상업적 고려가 맞물리게 되면 퍼지 집합 태도는 대중을 위협하는 부정적 무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마샬아츠 트릭킹이나 익스트림 마샬아츠라는 문화는 진지하게 학문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 전에 현대인의 대중적 상품이 되었고 대중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드리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동작 요구에 의한 부상의 위험성, 현실감 없는 행위의 표현, 비이성적 상상, 그리고 본질적 마샬아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깊이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 마샬아츠트릭킹(익스트림마샬아츠) 공연예술(홍춘봉, 2018)

마샬아츠 트릭킹 또는 익스트림 마샬아츠의 또 다른 현상으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보여주기 위한 시각적 퍼포먼스로 전이되어 <그림 4>와 같이 무술, 무도, 무예의 마샬아츠 측면과 결합하며 마샬아츠 공연예술이라는 문화예술의 콜라보레이션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김동석, 2019; 임세영, 2020; 허상천, 2020).

대표적으로 태권도 격파시범을 중심으로 한 공연들과(박태승, 전익기, 2011), 경기와 공연을 혼합한 대회형식의 공연 등(박종민, 2016),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의 예술 장르를 벗어나 신체의 행위와 동작을 무술, 무도, 무예의 실전기술에 접목하여 나타내며 스토리텔링과 연출성을 높여 마샬아츠 트릭킹이나 익스트림 마샬아츠에 무지한 사람들도 예술적 감각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김한식, 2015; 이상준, 2017; 하지은, 2015). 동시에 이러한 공연들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수익사업보다 지역사회 부흥과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전략을 도모하는 공연예술의 순기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강은석, 문영재, 허승은, 2019; 이루지, 2014), 마샬아츠 공연예술 확대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군의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마샬아츠라는 특정적 관점에서 무술, 무도, 무예라 불리는 시대와 스포츠와 상업화로 불리는 시대, 그리고 행위와 공연예술로 불리는 시대로 변화하는 문화적 사실을 인지하고 마샬아츠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정리의 필요로 시작되었으며 마샬아츠에 열광하는 인간들의 사회적 현상과 마샬아츠의 시대에 따른 문화적 소산을 시대정신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마샬아츠의 사회적 의미와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심층적 기술을 적용하여 무술, 무도, 무예로의 흐름, 스포츠와 상업화로 흐름, 그리고 행위와 공연예술로의 흐름을 사회학적 방향으로 고찰하였다.

무술, 무도, 무예로의 흐름에서는 각 명칭에 대한 쟁점이 정체성과 방향성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대체로 싸움기술의 실천적 측면은 무술의 명칭을, 행위예술과 예법의 측면은 무예의 명칭을, 그리고 무사도 정신의 삶의 철학 측면은 무도로 발전하였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더불어 동북아 중심으로 국한되어 연구된 무술, 무도, 무예는 현대사회로 진입하며 많은 국가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시대정신의 다원성을 근거로 각 국의 마샬아츠는 민족의 특수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내셔널리즘이 잠재되어 있었다.

스포츠와 상업화로 흐름에서는 스포츠의 규칙과 경쟁이라는 제도에 무술, 무도, 무예 종목이 결합하여 마샬아츠 스포츠라는 형태로 진화되었으며 이미 상업화된 마샬아츠 스포츠는 기존 무술, 무도, 무예의 본질적 사상이 배제되는 문제점과 스포츠 문화의 탈 장르적 특성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행위와 공연예술로의 흐름에서는 과거 마샬아츠라 불린 무술, 무도, 무예의 본질적 시각과 현대 마샬아츠 스포츠 종목의 규칙과 경쟁 차원을 벗어난 새로운 마샬아츠가 도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마샬아츠 트릭핑 또는 익스트림 마샬아츠는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시대정신에 따른 그 시대 문화와 인간행위 및 양식이 탈 절대이념의 개성, 자율성, 다양성, 그리고 대중성

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보화 시대의 공급이 넘치는 사회로 이어지며 또 다른 소비문화 현상의 결과로 볼 수 있었고 나아가 행위에 그치지 않고 행위를 보여주는 시각적 퍼포먼스로 전이되어 마살아츠 공연예술이라는 문화예술 영역의 확대를 불러오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첫째는, 동북아 중심의 무술, 무도, 무예가 가진 문화적 독특성과 학문적 사상이 전통성뿐만 아니라 현재성도 함께 지닐 수 있는 현재진행형의 마살아츠 문화 활동이기에 현대사회로 들어서며 마살아츠의 스포츠 상업화와 마살아츠라 불리는 행위 공연예술의 동반성장은 무분별하고 무의식적으로 본질을 흐트리는 마살아츠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둘째는, 시대정신에 의거,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마살아츠의 변화와 변모는 당연한 현상이며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목적이 달라지고 또 다른 규칙이 생기며 기술은 화려해질 것이라 생각하는바, 무술, 무도, 무예의 사상을 맹목적으로 고집하기보다 무너지지 않는 기준을 세운 상태에서 시대 흐름의 변화에 대해 경계와 발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다.

셋째는, 미래로의 마살아츠가 지닌 스펙트럼이 무한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대정신의 공통점인 주체에서 탈출과 경계해체,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지식에서가 아닌 인식에서 비롯되어 합리적, 보편적,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따른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으로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마살아츠 종목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양적 사상의 무술, 무도, 무예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과 이로 인해 국가별 현존하는 마살아츠 종목에 따른 역사적 사실을 문헌 자료의 부족으로 무술, 무도, 무예에 따른 개념에 대입하여 도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따라서 후속연구로는 나라별 마살아츠의 종목에 관한 내용을 역사적 사실에 의거 심도 있게 기술하고 종목에 따른 개념을 무술, 무도, 무예에 따라 정립하는 작업을 시도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강은석, 문영재, 허승은(2019). 태권도 시범의 공연예술과 경기화 발전방향 탐색.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0(4), 77-93.
- 구창민(2017). **도전하라! 마살아츠 트릭킹**. 서울: 중도일보.
- 김동규(2010). 스포츠내셔널리즘의 형성과 맥락: 새로운 시선.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8(4), 39-52.
- 김동석(2019). **국내최고 익스트림 퍼포먼스 ‘인피니티 플라잉’** 대구: 매일신문.
- 김민훈(2019). ‘고수를 찾아서2 특집’ 마살아츠 트릭킹의 매력에 빠지다. 부산: 국제신문.
- 김방출(2013). **스포츠와 체육의 역사, 철학 제1권**. 서울: 레인보우북스.
- 김보민(2017). **화려한 퍼포먼스, 마살아츠 트릭킹에 도전하다!** 경기: EBS뉴스.
- 김석기, 김지혁(2014). 스포츠팬의 문화적 함의.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2(2), 89-110.
- 김수평(2019). **조형예술과 시대정신**. 서울: 수서원.
- 김영선, 여인성(2018). 태권도의 유개념으로서 무예와 무도. **국기원 태권도연구**, 9(1), 23-56.
- 김오중(2000). 스포츠개념에 대하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2, 3-12.
- 김정행, 김창우, 이재학(2007). **무도지침서**. 서울: 대한미디어.
- 김지혁, 구강본(2017). 무술의 본질적 특성과 무도스포츠의 도덕적 함의.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5(2), 89-102.
- 김지혁, 안용규(2016). 한국무예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구축.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4(4), 287-299.
- 김한식(2015). **해남군, 28일 마살아츠 퍼포먼스 ‘혼’ 공연**. 서울: 뉴스1.
- 김호기(2012). **시대정신과 지식인**. 서울: 돌베개.
- 나영일(2001).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무예의 도입 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7, 144-154.
- 박귀순(2018). 무예용어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23(1), 21-35.
- 박이문(2004). **사유의 열쇠: 철학**. 서울: 산처럼.

- 박종민(2016). **레드블 킥잇, ‘발차기의 달인들’** 서울: 노컷뉴스.
- 박철희(1957). **파사권법**. 서울: 강덕원.
- 박태승, 전익기(2011). 공연관광물로서의 태권도공연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3(7), 429-447.
- 서규환(2011). **비판적 시대정신**. 서울: 다인아트.
- 송형석(2011). 스포츠개념의 정의에 대한 회의적 입장의 비판적 고찰: Kleinman과 McBride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0(3), 11-20.
- 심상규(1998). **무인의 철학**. 서울: 문예마당.
- 안용길(2016). 체육, 스포츠, 무도 용어의 법적 정의와 개념에 대한 입법적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4), 175-204.
- 양진방(1999). 무술, 무예, 무도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 **대한무도학회지**, 1(1), 27-37.
- 유홍식, 임성원, 김수정, 박원준, 김인경(2004). 폭력적 이중격투기 프로그램 시청이 수용자의 지각각성, 상태분노, 상태 적대감 및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8(4), 147-176.
- 이경명(2002). **태권도의 바른이해**. 서울: 상아기획.
- 이경명, 김철오(2004). **국기 태권도 무예요해**. 서울: 상아기획.
- 이광호(2018). **마살아츠 트릭킹의 세계로**. 서울: 뉴스1.
- 이루지(2014). 문화예술산업 콘텐츠로서 태권도공연의 상품화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3), 1-26.
- 이상준(2017). **무술을 활용한 너버벌 퍼포먼스 점프의 의사전달 매커니즘: 자크라캥의 L도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성진, 고연화(2009). 한국 무도의 학문적 현실과 전망. **대한무도학회지**, 11(1), 226-238.
- 이은진(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 **음악학**, 28(1), 137-148.
- 이정연, 김방출, 오현택(2006). 포스트모던 스포츠로서의 이중격투기 탐구와 그 윤리성에 대한 논의.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4(1), 42-58.
- 이정학(2008). 동양무도와 서양스포츠에 관한 철학적 담론. **대한무도학회지**, 10(2), 37-46.
- 이학준(2017). 무술, 무예, 무도의 명칭 논쟁과 방향. **한국체육학회지**, 56(4), 1-10.

- 임동규(1990). **한국의 전통무예**. 서울: 학민사.
- 임세영(2020). 온라인 공연 펼친 태권도 시범단 ‘화려한 발차기’ 서울: 뉴시스.
- 정재환, 김지혁, 광택용(2012). 국가대표태권도시범단 명칭에 대한 정체성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0(3), 1-12.
- 조재휘(2020). ‘엽문’으로 본 홍콩 무술영화의 정치성. 부산: 국제신문.
- 지동철(2011). 무도수도의 본질과 정체성.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9(2), 53-73.
- 차명환(2015). 한국무술인식의 포스트모던적 접근. **대한무도학회지**, 17(2), 87-100.
- 최성환(2015). 철학의 길, 그리고 우리의 길 -철학정신과 시대정신의 교차점에서-. **철학탐구**, 37, 1-22.
- 최종균(2002). **일본무도의 형성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최종균, 박귀순(2017). 일본 무도교육의 필수화 과정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22(2), 53-66.
- 하지은(2015). **구리아트홀, 년버벌퍼포먼스 ‘점프’ 공연**. 경기: 경기일보.
- 한혜진(2013). **국내에 익스트림 마셜아츠 ‘트릭킹’ 새바람 불까?** 경기: 무카스.
- 허상천(2020). **영화의 전당, 포스트 코로나 ‘문화예술교육’으로 대비**. 서울: 뉴시스.
- 허창수(2019). 시대정신을 위한 교육담론으로서 비판교육학의 가능성 탐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6), 80-91.
- 헤커스뉴스(2019). **세계 무술의 종류**. 서울: 헤커스뉴스.
- 홍득표(2011). 당면한 시대정신의 탐색 시도. **의정논총**, 6(2), 83-103.
- 홍춘봉(2018). **하이원리조트, 신규공연 마셜아츠 퍼포먼스 혼 런칭**. 서울: 프레시안.
- Chu, F. J.(2003). *The Martial way and Its Virtues: Tao De Gung*. Wolfeboro, YMAA Publication Center.
- Forrest Morgan(2007). *Living The Martial Way*. Fort Lee, Barricade Books.
- Johnson, John, A.(2017). From technique to way: an investigation into taekwondo’ pedagogical proess. *Journal of Martial Arts Anthropology, Idoan Poland Association*. 174), 3.
- Peter Thiel(2014). *zero to one*. NY: Crown Business.

ABSTRACT

A Study on The Martial art' s Trend from The Perspective of Zeitgeist

Kang, Eun-Suk · Park, Seon-Ho(Dong-A Univ) · Lee, Ji-Hoon(DGIST)

This study This study started with the awareness about the necessity to put things in order about the trends of martial arts as to their changes in different ages, the one when they are called “martial technique” , “martial way” , or “martial artistry” , the one when they are called commercial items in the name of “sports” , and the one when they are called, “performance arts” . I have attempted to explain martial arts and the social phenomena along with their cultural products with “Zeitgeist” . The controversy over the names of the martial arts such as “martial technique” , “martial way” , and “martial artistry” exists among scholars depending on the identities and directions they assign. Such different concepts of martial arts used to be viable in North East Asia, getting permeated into other countries in modern times. While doing so, each country' s special and practical nationalism lurks in martial arts based on “zeitgeist” . In the general trend of commercialism, martial arts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to “martial arts sports” combining all aspects of martial arts, which essentially excludes the traditional spirits of martial arts. Ironically, this trait is changing martial arts into a cross-genre cultural item. This is a new version of martial arts, containing the zeitgeist of our age, which is a result of consumerism in the flood of information and in excessive-democracy where human rights come before everything else.

Key words: Zeitgeist, Martial arts, Martial technique, Martial way, Martial artistry

논문투고일 : 2020.09.25.

심 사 일 : 2020.10.10.

심사완료일 : 2020.10.31.

